



[뉴스] 고용시장 별드나 실업급여 지급액 두 달째 1조 밑돌아 02



Economy

|            |                 |           |                      |
|------------|-----------------|-----------|----------------------|
| 코스피        | 2960.20 (-9.07) | 코스닥       | 1002.50 (+1.15)      |
| 금리 (미국 3년) | 1.906 (-0.038)  | 환율 (원/달러) | 1183.10 (-2.10) (8일) |

# 일상으로 번지는 요소수 사태... '쓰레기 소각' 비상

전국 소각시설 폐기물 소각 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요소수 활용 공급난 지속돼 소각시설도 멈춰

요소수 대안으로 입증된 '음폐수' 환경부 미온적 태도로 활용 못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자칫 전국적인 '쓰레기 대란'으로까지 번질 위기다.

공급난에 허덕이고 있는 요소수가 배출가스저감장치(SCR)를 갖춘 경유차 뿐만 아니라 가연성 산업·생활용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시설에도 두루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2019년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의 5.2% 수준인 하루 평균 2만5984톤(t)의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소수 공급난이 계속될 경우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그대로 쌓아두거나, 질소산화물(미세먼지)을 제대로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태워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업계에선 '음식물 류폐기물 처리 잔재물'(음폐수)이 요

소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음폐수의 효과가 연구를 통해 입증됐지만 이마저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장에선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4년 당시 하루 평균 40만1658t이었던 폐기물은 2019년엔 49만7238t으로 늘었다. 기존의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폐기물은 지난해와 올해 하루 평균 50만t이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사업장·건설 폐기물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폐기물(2019년 기준) 중에서 86.6%는 재활용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땅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각각 처리한다.

여기서 소각할 수 밖에 없는 산업·생활용 폐기물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와 직결된다. 요소수가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을 질소로 환원시켜 배출하는 촉매 환원제로



한 민간 소각시설에서 산업용 폐기물을 소각로에 넣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소각시설은 총 445개로 이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하루 3만8613t, 연간 기준으론 904만713t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생활 쓰레기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소각시설에서,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산업 쓰레기는 공장내 자가처리시설이나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해 처리하는 구조다.

민간 소각업체 관계자는 "요소수는 최근 들어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고, 구입하려 해도 쉽지 않다. 이때문에 소각시설별로 바다까지 굶어서 요소수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지금 상태라면 이달 중에 (요소수가) 모두 고갈돼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위드 코로나' 첫 주 위중·사망자 급증 '방역 녹록지 않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첫 주, 확진자와 사망자, 중증환자가 동시에 급증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일상 속 개인 방역을 실천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 지난 한 주(10월31일~11월6일) 평균 확진자 수는 2133명을 기록하며 5주만에 다시 2000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평균 위중증 환자는 365명으로 직전 주보다 9.6% 늘었고, 60대 이상 사망자 수 역시 72명에서 122명으로 급증했다.

확산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20으로 3주 연속 증가했다. 지난 7일 중순의 1.32 이후 최고치다.

정부가 현재 방역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경고했다.

평균 위중증 환자 9.6% 증가 60대 이상 사망자 수도 50명 ↑

할러윈 등 방역 이번주 예의주시 정부 "일상 속 개인방역 실천을"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상회복 전환 이후 첫 주말이 끝난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와 고용이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방역 상황은 아직 녹록치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상회복과 할러윈 등의 여파가 반영되는 이번 주 확진자 급증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항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완화와 할러윈 모인 등으로 지난 주말 확진자수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환자와 사망자수가 2주 연속 증가하면서 의료 대응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방역 긴장감이 과도하게 이완될 경우 일상회복을 먼저 시작하는 다른 나라처럼 유행 급증할 가능성 있다"고 경고했다.

방역당국은 주기적인 실내 환기와 마스크 착용 등 자발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文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을 두고 8일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자체 TF를 꾸리고 정부도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도 당부한 것이다.

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자체 TF를 꾸리고 정부도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나선 가운데 문 대통령도 당부한 것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요소수 수급 불안정 관련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디젤 기관 차량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즐기면서 돈도 번다... MZ세대, '덕질테크' 활발

운동화·한우·음악저작권 등 '리셀'부터 '조각투자'까지 소액으로 다양한 상품 투자

운동화, 슈퍼카, 한우, 미술품, 음악저작권 등 개인투자자의 투자상품이 다양해졌다. 주로 MZ세대 위주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면서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 펀드, 부동산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 진입장벽도 낮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Z세대의 대체투자로 ▲한정판 제품을 사들여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리셀' ▲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의 조각 소유권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등이 떠오르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가 비대면 금융상품과 간편 투자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관련 플랫폼 진출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리셀'의 경우 한정판 운동화를 되파는 '슈테크'가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리셀 시장에 등장하는 운동화들은 대부분 한정판 제품이다. 추첨에 참여한 후 당첨되거나 매장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줄을 서야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드

래곤, 트래비스 스캇 등 유명 연예인들이 상품 제작에 직접 참여해 한정판 상품에 대한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것도 인기 요인이다.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나 한정판 제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한정판 운동화 거래 플랫폼으로는 네이버의 크림(KREAM), 무신사의 솔드아웃(sold-out), 글로벌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stockX) 등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있다.

국내 업계 1위인 크림은 지난해 누적 거래액 2700억원에서 올해 250% 성장

한 9450억원을 웃돌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 3월 벤처캐피털(VC) 소프트뱅크벤처스, 알토스벤처스 등으로부터 200억원의 투자금액을 유치했다. 이어 10월에는 알토스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해 누적 투자금액만 총 1400억원에 달한다.

'조각투자' 상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테사(TESSA)에서는 미술품 소유권 거래가 가능하며, 뮤직카우에서는 음악 저작권료 거래가 이뤄진다.

<2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11일 美동아태차관보·中대사 만나... 외교 쟁점들 /사진 뉴스스  
▲ 김총리, 요소수 사태에 "아프게 반성... 초기대응 아쉬움"

▲ 中6중전회 개막... 시진핑 3연임 명분담을 역사결의 초안 보고  
▲ 공수처, 윤석열 네번째 입건... 이번엔 '판사 사찰 문건 의혹'



▲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건상 올해는 여러가지로 어려워" /사진 뉴스스  
▲ 통일부 "北 포사격 훈련, 의도 예단하 기보단 동향 주시"